

안승권
LG전자 부사장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이다. 그리고 IT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이자 성장동력이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은 90년대의 CDMA 이동통신 기술개발 성공을 통해 현재 세계 휴대폰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IT 성장동력의 주 엔진이다.

최근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 융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품이 창출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고 있으며, 이 시장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최고 상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술을 선 개발하고 상품을 선 출시해 시장 주도권을 잡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확보한 IPR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IPR비용 절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술 로열티 수입에 이르러야 한다.

현재 많은 국내 업체들이 표준활동 중요성을 인식해 표준전문가를 육성하고 있고,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의 결과 의장단에도 많이 진출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럽 및 구미 지역이 표준 주도권을 쥐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이익 극대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과제인 표준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기업 표준활동 활성화

표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도적인 자세로 각 기업에서는 IPR을 표준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IPR을 확보하여 로열티 수입 확보 및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한 라이선스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둬야 한다.

현재 국내 주요 선도업체들은 Pre-4G 또는 3.9세대 기술인 3G 차세대 초고속 이동통신기술(HSPA 및 LTE)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보다 국제적인 제휴·협력을 통한 세력확대 및 원천기술 IPR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

현재 ITU가 4G의 공식 명칭을 IMT-Advanced로 결정한 것은 3세대(3G) 기술인 IMT-2000과 3.5세대(3.5G) 기술인 HSDPA·와이브로 등을 토대로 4G를 구현하겠다는 것인 만큼 국내 업체들이 국제 표준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와이브로의 핵심기술을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해 ETRI, SK텔레콤, KT 등 국내 업체들이 대거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4G 표준화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들의 보다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TTA 및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3GPP LTE 표준 또한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IPR을 확보해야 할 분야이다

◎ 국가적 차원의 선택과 집중

세계 여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너무 다양한 여러 분야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핵심 기술 분야를 정하여 국내의 R&D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IT839 프로그램은 이러한 의미에서

구심체역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IT839에 보다 많은 기업체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국내기업간 연대 강화

현재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전체에 대한 에코시스템(Ecosystem)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외부품업체와 3rd Party 솔루션업체에 많은 국내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 결속력을 공고히 하려는 국내 기업들 간의 노력자체도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차세대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국내업체들의 공생과 이를 토대로 한 해외시장진출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정보에 대한 교류 및 표준화 기구에서의 협력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3G 진화와 향후 도래하게 될 4세대 이동통신은 우리의 표준화 전략 및 노력 여부에 따라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의 국제 표준화 동향이 향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에서의 표준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4G는 특히 컴퓨팅업계와 이동통신업계가 융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IT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표준화 전략이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TA**

